

★ EBS 연계 교재-문법 최종 정리 (1교시 시작 30분 전, 마무리 정리^^) ★

어절 띄어 쓰는 단위

단어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조사는 의존 형태소이 지만 단어로 인정함.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단어] 어절/단어/형태소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어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단어	꽃	사이로	발자국	을 찾아 나서면
형태소	꽃	사이로	발자국	을 찾아나서면
기준	종류	개념		예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체언, 수식언, 독립언		발, 자국
의미 유형 따라	의존 형태소	다른 말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을, 찾-, -,아-, 나-, 서-, -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 → 체언, 수식언, 독립언 및 용언의 어근		발, 자국, 찾-, 나-, 서-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 조사, 어미, 접사		을, -아, -면

[단어] 어근과 접사		
어근	실질적인 의미, 중심 부분	
접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앞) 접두사	(뒤) 접미사
	군말 →군(접두사)+말(어근) 지우개 →지우(어근)+개(접미사)	

[단어] 직접 구성 성분

- 단어를 두 조각으로 한 번만 나누어 나온 구성 요소

불꽃놀이		단팔죽		장구러기		직접 구성 성분			
불꽃	놀이	단	팔죽	장	구러기				
불	꽃	놀	이	단	팔		죽	자	꺠

[단어] 합성어

-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동사적 합성어	밥낚(밥+낚: 명사+명사) 새해(새+해: 관형어+명사) 보판다. (보+판다: 목적어+서술어) 뛰어가다(뛰+어+가다: 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덜덜(덜+덜: 용언의 어간+명사) 놀푸르다(놀+푸르다:용언의 어간+용언) 적적박사(적적+박사: 부사+명사)
대동 합성어	논밭(논과 밭) 놀푸르다(놀고 푸르다) 마소(말과 소)
종속 합성어	물다리(물로 만든 다리) 국그릇(국을 담는 그릇) 걸어가다(걸어서 가다)
융합 합성어	돌아가다(죽다), 강산(자연) 춘추(어른의 나이)

[단어] 파생어

-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접두	헛기침(헛+기침) 치솟다(치+솟다) 군침(군+침)
파생어	새파랗다(새+파랗다)
접미	바느질(바늘+질) 구경꾼(구경+꾼) 많이(많+이:형용사→부사)
파생어	웃기다(웃+기+다: 주동사 → 사동사)

[단어] 파생어 형성의 결과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는 경우	사+어머니(명사)→시어머니(명사) 새+파랗다(형용사)→새파랗다(형용사)
품사가 바뀌는 경우	지우(동사)+개→ 지우개(명사) 열리다(개는 '누가 무엇을 하다'의 구조를, '열리다'는 '무엇이 (누구에 의해) 열리다'의 구조를 보임)
품사와 문장 구조가 모두 바뀌는 경우	낯(형용사)+추다→낯추다(동사): '낯다(형용사)'는 '무엇이 낯다'를, '낯추다(동사)'는 '누가 무엇을 낯추다'의 구조를 보임

[단어] 유의 관계

-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
 - 두 개 이상의 단어가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예) 가난하다 - 빈곤하다 - 빈궁하다 - 어렵다 - 궁핍하다

[단어] 반의 관계

-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단어들의 관계
-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는 공통됨

'총각 : 처녀'→반의 관계	총각+[미혼] [+성인] [+남성]
'총각 : 아주머니'	처녀+[미혼] [+성인] [-남성]
→반의 관계가 아님.	아주머니 [-미혼] [+성인] [-남성]

[단어] 상하 관계

-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의미 관계
 - 상위어(포함하는 단어) :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 하위어(포함되는 단어) :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
- 예) 직업 : 작가 → '직업'이 상위어, '작가'가 하위어
- '작가 : 시인' → '작가'가 상위어, '시인'이 하위어

[품사] 품사의 분류

	형태	기능	의미
단어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가변어	관개언	조사(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한 모든 조사)
		관계언	서술격 조사 '이다'
		용언	동사 형용사

[품사] 의존명사

-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예) 것, 따름, 뿐

[품사] 대명사

지시 대명사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
인칭 대명사	1인칭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짐(朕)
	2인칭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너, 자네, 당신
	3인칭 화자와 청자 이외의 사람	그, 이분, 저분
미지칭 대명사	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분, 이이, 그이
미지칭 대명사	지시 대상을 확실하게 모를 때	누구, 어디
부정칭 대명사	특정한 지시 대상이 아닐 때	아무개, 아무것
대체칭 대명사	앞의 체언을 다시 가리킬 때	저, 자기, 당신

[품사] 조사

- 체언,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뒤에 붙기도 함
- 관형사나 감탄사 뒤에는 붙을 수 없음
- 서술격 조사인 '이다'는 활용함

[품사] 접속 조사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와/과	하고	(이)랑
주로 문어에서 쓰임.		주로 구어에서 쓰임.

[품사] 격조사

-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가	을/를	의	이/가	에,에게	아, 야	이다
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보어	부사어	독립어	서술어

- 보격 조사: '되다', '아니다' 앞에 쓰임
- 정부/단제+에서: 주격조사로 쓰임

[품사] 보조사

-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은/는	만, 뿐, 도	요	부터	까지	조차	밖에	마저
대조	한정	역시	상대	시작	도급	역시	추종
	단독		높임	먼저	미침	최종	끝

- 보조사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

[품사] 동사, 형용사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구별 기준	동사	형용사
현재시제 선언할 어미	결함 가능 먹는다, 읽는다(O)	결함 불가능 예쁘다, 높다(X)
관형사형 어미	결함 가능 먹는, 읽는(O)	결함 불가능 예쁜는, 높은(X)
진행상	결함 가능 먹고 있다(O)	결함 불가능 예쁘고 있다(X)
의도 목적 어미	결함 가능 ~(으)려/려	결함 불가능 예쁘려 한다(X)
명령	결함 가능 먹어라, 먹자(O)	결함 불가능 예쁘라, 예쁘자(X)
청유	~(자)	

본용언	보조용언
• 홀로 쓰일 수 있음.	• 홀로 쓰일 수 없음.
• 주체의 동격이나 상태	• 본용언에 독특한 의미부여

[품사] 용언의 활용

규칙 활용	내용
잡+어→잡아	어간, 어미의 형태가 바뀌지 않음.
울+는→우는	어간의 끝소리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ㄷ, ㅌ, ㅌ' 앞' ~(으)오, (으)르'앞에서 탈락함.
물+는→무는	어간의 끝소리 'ㄱ'가 어말 어미 '아 /-어'로 시작되는 어미나 선언어 어미 '았/었'앞에서 탈락함.

불규칙 활용	내용	명칭	활용
짓+어→지어	'ㅅ'이 모음 어미 앞에 서 탈락	'ㅅ'	불규칙
들+어→들어	'ㄷ'이 모음 어미 앞에 서 '르'로 변함	'ㄷ'	불규칙
문[問]+어→물어	'ㅁ'이 모음 어미 앞에 서 '우'로 변함	'ㅁ'	어간
흐르+어→흘러	'ㄹ'가 모음 어미 앞에 서 '르'로 변함	'ㄹ'	불규칙
푸+어→퍼	'우'가 모음 어미 앞에 서 탈락	'우'	불규칙
공부하+어→공부하여	어간 '하'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어'로 변함	'어'	불규칙
푸르+어→푸르러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에 결합된 어미 '-어'가 '-러'로 변함	'러'	어미
오+어러→오너러	명령형 어미 '-아/어'라'가 '-너러'로 변함	'너러'	불규칙
파랑+아→파래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함	'ㅎ'	모두

어간	어미
ㅅ	다
ㅅ	고
ㅅ	어
활용할 때 변하지 않음	활용할 때 변함

[품사] 감탄사

- 부르는 말, 느낌을 나타내는 말, 대답하는 말로 쓰이면서 독립성이 있는 말
- 감탄사 여보, 애, 맛, 허허, 저런, 아이고, 흠, 네, 응, 쓰임 부르는 말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 대답하는 말

-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단어가 감탄사임.
- 예) **“화생!”**이라고 부를 때, ‘화생’은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감탄사가 아님

[품사] 관형사

- 체언(주로 명사)을 수식

성상 관형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새 옷, 흰 책 순 살고기
지시 관형사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	이 의자, 그 사람 저 자전거
수 관형사	수량이나 순서와 같은 수 개념을 나타내는 관형사	세 사람, 열덩 다섯 자루

- 조사와 결합하지 않음

[품사] 부사

- 용언, 관형사, 부사, 문장을 수식하고 부사어로 쓰임
- 문장 내에서 그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 격조사와는 결합하지 않지만, 보조사는 취할 수 있음.
- 성분 부사: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

성상 부사	용언 등을 꾸미는 부사로, 의성 부사와 의태 부사가 여기에 속함.	잘, 매우, 바로, 아삭아삭, 사뿐사뿐
지시 부사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	이리, 그리, 저리
부정 부사	부정의 뜻을 가진 부사	못, 아니/안
	• '바로, 다만, 특히, 오직, 겨우, 아주' 등은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지만, 명사를 수식하기도 함.	
	예)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사 '바로'가 체언(대 명사) '그것'을 수식	
	•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양태 부사 화자의 태도를 나타냄
다행히, 과연, 설마
접속 부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줌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

[문장성분] 서술어

- 무엇이 '어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
-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의 수

한 자리 서술어	주어 하나만 필수적으로 요구 그녀는 애썼다. 꽃이 피었다.
두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를 요구 그는 연극을 보았다. 우정은 보석과 같다.
세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문장성분을 요구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문장성분] 주어

-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
 - 체언이나 구나 절에 주격조사 '이/가/께서'가 붙어서 나타남
 - 예) 선생님께서는 도서관에 가고 안 계시는데…….
 - 주격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 예) 철수/철수도 도서관에 가고 있는데…….

[문장성분] 목적어

- 서술어의 동작 대상
- 목적격조사 '을/를'은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기도 함
- 예) 나는 (과일을/과일/과일도) 좋아해.

[문장성분] 보어

-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성분
- 보격 조사 '이/가'는 생략되거나 보조사가 될 수도 있음.
- 예) 그는 학생이 아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문장성분] 관형어

관형사	아가가 새 옷을 입었다.
체언+관형격조사 '의'	소녀는 (시름의/시름) 풍경을 좋아한다.
용언의 관형사형	철수는 예쁜 꽃을 썼다.
• 체언 뒤에 붙는 관형격조사 '의'는 생략될 수 있음	
• 관형어의 특징	
단독으로 쓰이지 못함	"이게 그 옷이니?" "응, 그."(X)
반드시 체언 앞에만 놓임	새 신발, 흰 옷(O) 신발 새, 옷 흰(X)
체언에 나란히 연결되어도 관형어가 될 수 있음	나는 언니 옷을 빌려 입었다.

[문장성분] 부사어

- 부사, 용언의 부사형, 체언과 조사의 결합
- 예) 지하철을 타면 **더 빠르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함

	코스모스가 잘 예쁘다.→부사어 '잘'이 용언(형용사) '예쁘다'를 수식함.
성분 부사어	그들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다.→부사어 '아주'가 관형어 '오랜'을 수식함.
	일이 매우 높이 나는구나.→부사어 '매우'가 또 다른 부사어 '높이'를 수식함.
문장 부사어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문장 전체를 수식
부사어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 부사어의 특징
	보조사가 붙을 수 있음 문장 부사어의 경우에
	시간이 빨리 도 간다.(보조사 '도')
	자리 옮김이 자유로움. 그 옷은 확실히 멋지다.
	수식 받는 성분 앞에 오기까지 아주 빨리 달린다.(○)는 것이 자연스러움
	기자가 빨리 아주 달린다.(x)

[문장성분] 독립어

감탄사	아 , 왜 이 밝다. 예, 맞습니다.
체언+호격 조사	애구 , 대 그리고 내 속을 몰라주니? 정준 ,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철수아 , 학교 가자!

[문장] 홀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 예) 꽃이(주어) 예쁘다.(서술어)

[문장]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문장-겹문장] 명사절을 가진 안문장

- 명사형 어미 '-(으)ㅁ', '-기'와 결합
 -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관형어 등의 기능
- 예)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주어)
-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목적어)
-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부사어)

[문장-겹문장] 관형절을 가진 안문장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과 결합
- 관형어 기능
-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관형절이 표현하는 시제가 다름.

-(으)ㄴ	과거/현재	이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과거)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현재)
-는	현재	이것은 내가 읽는 책이다.
-(으)ㄹ	미래	이것은 내가 읽을 책이다.
-던	과거	이것은 내가 읽던 책이다.

[문장-겹문장] 부사절을 가진 안문장

- 접미사 '-이', 부사형 어미 '-게', '-도록', '아/어' 결합
 - 부사어의 기능을 하여 서술어를 수식
- 예)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부사어)

[문장-겹문장] 서술절을 가진 안문장

- '주어+주어+서술어'의 문장 구조(표지 없음)
 - 두 개의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나오는 주어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서술절에 해당하는
- 예) 토끼는 (주어) **[와일비](주어) 쫓다.[서술어]** 서술어(절 전체)

[문장-겹문장] 인용절을 가진 안문장

- 다른 사람의 말이이나 글을 인용한 절
 - 직접 인용 : 부사격 조사 '라고'가 붙음
 - 간접 인용 : 부사격 조사 '고'가 종결 어미 '-다, -냐, -라, -자, -마' 따위 뒤에 붙음
- 예) 기원은 당황한 어조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말했다.(직접 인용절)
- 철수는 자기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간접 인용절)

[문장-이어전문장]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전문장

- 대등한 두 홀문장이 이어전 문장

나일	-고, -(으)며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대조	-(으)나, -지만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선택	-든지, -거나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하자.

[문장-이어전문장]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전 문장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종속적인 문장

원인	-(아)서, -(으)니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졌다.
조건	-(으)면	배가 고프면 라면을 먹어라.
의도	-(으)려고	비 오는 날에 신으로라고 강화를 샀다.
상황	-는데	내가 잠을 자는데 누가 깨울까?
양보	-(으)더라도 -(으)지않건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계획대로 출발한다.

[문법요소-높임법] 상대 높임법

-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	하심시오예	합니다	합니다까?	하십시오 (하시지요)	-
	하오제	하오	하오	하오하구려	합시다
	하계제	하네함세	하는가?하냐?	하계	하세
비격식	해라제	한다	해라?	해라	하자
	해오제	해요하오?	해요?	해요하지요	해요하지요
	해제	해지	해?	해	해, 하지

[문법요소-높임법] 주제 높임법

- 문장의 주제(주어)를 높이는 방법
- 용언의 어간+선어말 어미 ‘-(으)시-’, 주격조사 ‘께서’의 사용, 주어 명사+‘-님’, 높임을 나타내는 단어의 사용(계시다, 갑수시다 등)으로 실현

직접 높임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 선생님 께서 벌써 도착 하셨어 . 할아버지 께서는 매일 이 시간이면 낮잠을 주무셔 .
간접 높임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임 선생님 말씀이 타당 하십시오 . 할머니 께서는 아직 귀가 밝 으십시오 .

[문법요소-높임법] 객체 높임법

- 서술의 객체(목적어, 부사어 지시 대상)를 높이는 방법
- 객체 높임 특수어휘(뵤다, 모시다, 드리다, 여주다/여쭙다 등), 조사 ‘께’의 사용으로 실현됨.
- 예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문법요소-부정문]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안’ 부정문	‘못’ 부정문
아니(안), 아니다	못, -지 못하다
-지 아니하다(않다)	
단순 부정(상대 부정)	능력 부정(주체의 능력 부족)
의지 부정(주체의 의지)	외부의 원인에 의한 불가능
나는 그를 안 만났다.	나는 그를 못 만났다.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 명령문: ‘-지 마/마라’, 청유문: ‘-지 말자’
- 예 그를 만나지 **마**라. (명령문) 그를 만나지 **말**자. (청유문)

[문법요소-종결 표현] 의문문의 종결 표현

설명 의문문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의문사)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지? 철수는 어디 갔니?
판정 의문문	궁경이나 부정의 대담(예/아니요)을 요구하는 의문문 넌 밥을 먹었니? 철수는 집에 갔니?
수사 의문문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 아무려면 철수한테 책 한 권 사 줄까?

[문법요소-시제] 과거 시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선어말 어미	우리는 그 영화를 보았다.
‘-았 -/ -었 -, ‘-더 -’	모임에는 몇 명이나 왔더니?
관형사형 어미	
동사: ‘-(으)ㄴ	그런 내가 먹은 사과야.
용언, 서술적 조사: ‘-던	예뻤던 그녀가 이렇게 변하구나.
과거 시간 부사어의 사용	어제 나는 집에 있었다.
‘-았었 -/ -었었 -’	: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표현
‘-더 -’	: 경험을 돌이켜 회상

[문법요소-시제] 현재 시제

-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은 시제

동사	선어말 어미	우리는 그 영화를 본다.
	‘-는 -/ -ㄴ -’	그는 밥을 먹는다.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운동장에서 공자는 저 애들은 몇 학년이야?
형용사 서술적 조사	관형사형 어미	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
	‘-(으)ㄴ’	이제 2학년인 녀석이 제법이군.
현재 시제 시간 부사어		학생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문법요소-시제] 미래 시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선어말 어미 ‘-겠 -’	저도 곧 가 겠 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으)ㄹ’	영수는 떠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으)ㄹ 겐’	내일 이면 물건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 시간 부사어	내일 아침까지는 일을 마무리 하겠 습니다.

[문법요소-시제] 동작상

-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 동작상의 종류

진행상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 보조 용언 ‘-고 있다’나 ‘-어 가다’, 연결 어미 ‘-으면서’ 등을 사용 이제가 밥을 먹고 있다. 빨래가 다 말라 간다. 그녀는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완료상	이미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표현 보조 용언 ‘-어 버리다’나 ‘-아/어 있다’, 연결 어미 ‘-고서’ 등을 사용 자장면을 다 먹어 버렸다. 지천이는 의자에 앉아 있다. 그는 나를 만나고서 학교를 떠났다.

[문법요소] 피동표현

-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에게/에’나 ‘에 의 해(서)’의 형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됨.

예	영희가 물고기를 잡았다. (능동문)
주어	목적어 능동사
물고기가 영희에게 잡혔다. (피동문)	
주어	부사어 피동사

- 피동문의 종류

파생적	피동사를 활용. 능동사 어간+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되다)	밖에 걸려 있는 시계가 보 였다 . 문이 바람에 닫혔다.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통사적	‘-어지다’, ‘-게 되다’를 활용함.	

[문법요소] 사동 표현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
- 주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 주동문의 용언이 형용사나 자동사일 때

예	길이 넓 다. (주동문-자동사)
주어 서술어	
사람들이 길을 넓 혔다. (사동문)	
주어	목적어 서술어

- 주동문의 용언이 타동사일 때

예	철수가 책을 읽는다. (주동문-타동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 (사동문)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 사동문의 종류

파생적	사동사를 활용함. 주동사 어간+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시키다)	누나가 동생에게 죽을 먹 였다 . 영미가 아기에게 옷을 입혔다. 영미가 운동장에서 연을 날렸다. 출발 시각을 10시로 늦켰다. 폐수가 강물을 오염시켰다. 엄마가 아이에게 웃을 일게 했다.
통사적	‘-게 하다’를 활용	

[음운변동-표준발음법 중심으로]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뒤다[따]	웃[온]	앞[ㅁ]
-------	------	------

제10항 겹받침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ㄲ’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ㅁ]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과]	할다[할따]	여덟[여덟]
------	--------	--------	--------

다만, ‘ㄹ’은 자음 앞에서 [ㅁ]으로, ‘ㄴ’은 다음과 같은 경우 앞에 [ㄴ]으로 발음한다.

났고[밥:꼬]	났-죽하다[넙추카다]	났-동글다[넙동글다]
---------	-------------	-------------

제11항 겹받침 ‘ㄹ, ㅁ, ㅂ,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뒀[따]	흔과[헉과]	말다[막따]	절다[점: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말게[말게]	물고[물꼬]	얼거[얼꺼나]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ㄷ, ㅁ)’ 뒤에 ‘ㄱ, ㄷ,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ㅅ]으로 발음한다.

뵤고[노꼬]	췌던[초:뵤]	췌지[찌치]
불임1 ▶ 받침 ‘ㄱ(ㄷ), ㄷ(ㅁ), ㅅ(ㅅ)’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ㅅ]으로 발음한다.	만형[마형]	뵤히다[뵤피다]
		알히다[알치다]

불임1 ▶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ㅌ, ㅊ’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훤 한 뵤[오탄뵤]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	--------------	----------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뵤는[논느]	췌내[췌내]
불임 ▶ ‘ㄷ, ㅁ’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एं내[안네]
	뵤내[뵤내→뵤레]
	뵤는[뵤는→뵤론]

4. ‘ㅎ(ㄷ, ㅁ)’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날은[나은]	놓아[노아]	췌이다[찌이다]
--------	--------	----------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어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꽃을[꼬췌]	꽃아[꼬차]	밭에[바테]
--------	--------	--------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어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ㄷ, ㅌ, ㄴ, ㄷ, ㄱ’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발 아래[바다래]	뵤 앞[느뵤]	겉웃[거툐]
-----------	---------	--------

제17항 받침 ‘ㄷ, ㅌ(ㅁ)’이 조어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발이[바치]	버췌이[버췌치]
--------	----------

불임 ▶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물히다[무치다]
----------	----------	----------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ㅆ, ㅈ, ㅊ, ㅌ, ㅊ), ㅌ(ㅌ, ㆁ, ㆁ, ㆁ)’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꽃망울[곤망울]	국물[궁물]	훈만[훈만]
----------	--------	--------

제19항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력]	침략[침략]	강릉[강릉]
---------	--------	--------

불임 ▶ 받침 ‘ㄱ, ㅌ’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나→뵤나]	협력[협넉→협넉]
-----------	-----------	-----------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난로[날:로]	신라[실라]	대관령[대:꺠령]
---------	--------	-----------

불임 ▶ 첫소리 ‘ㄴ’이 ‘ㄹ, ㄷ’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달논[달론]	뵤논[뵤론]	할내[할레]
--------	--------	--------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단]	생상량[생상냥]	임원료[이원료]
----------	----------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ㅆ, ㅈ, ㅊ, ㅌ, ㅊ), ㅌ(ㅌ, ㆁ, ㆁ, ㆁ)’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달논[달론]	뵤논[뵤론]	할내[할레]
--------	--------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ㄷ), ㄹ(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산:꼬]	꺼만다[꺼만따]	얹고[안꼬]
---------	----------	--------

제25항 어간 받침 ‘ㄷ,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넋고[넉:꼬]	할다[할따]
---------	--------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뵤[갈뵤]	발전[발뵤]	갈중[갈중]
--------	--------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할가:꼐]	갈 데가[갈뵤가]	만날 사람[만날쌔람]
-----------	-----------	-------------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표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뵤자]
-----------	-----------

제29항 합성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아, 여, 오,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나, 니, 네, 노,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니불]	흠-이불[흠:니불]	식음-유[시:공뉴]
------------	------------	------------

불임 1 ▶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물-악[물락]	술-일[술림]	물-엿[물:렛]
---------	---------	----------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ㄱ, ㄷ, ㅂ, ㅅ’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사이시옷’ + ‘ㄱ, ㄷ, ㅂ, ㅅ, ㅈ’⇒ [ㄱ, ㄷ, ㅂ, ㅅ, ㅈ, ㅉ] (원칙) / 사이시옷을 [ㄷ] 발음 (허용)	
넋가[내:까/넋:까]	새길[새:깎/새:깎]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사이시옷’ + ‘ㄴ, ㄹ’ ⇒ [ㄴ]	
콧날[콧날→콧날]	아랫날[아랫날→아랫날]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사이시옷’ + ‘이’ ⇒ [ㄴ]

[중세국어] 설명 의문문

- 개열의 가 있는 설명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 ‘고’와 ‘와 ‘오’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임
- 예 이 엇딿 사궤고
- 太子 | 이제 어디 잇느뇨?

[중세국어] 판정 의문문

-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 ‘가’와 ‘와 ‘아’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임
- 예 이 췌리 너희 흥가
- 尊者 사 우희 또 다른 上座 | 잇느닛가

[중세국어] 격조사

형태	실현 방법	사례	현대
ㅣ	‘ㅣ’ 모음 이외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터+이→부테 (부처가) 나+ㅣ→내(내가)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사름+이→사궤미(사람이)	이/가
Ø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휘+Ø→(불휘)	

주격 조사	형태	현대	환경	보기
궤셔 거요셔	궤셔	높임명사 뒤	和平翁主궤셔, 先人 거요셔	
이이셔 애이셔	에서	단체명사 뒤	나라해이셔	
	셔	일반명사 뒤	사궤셔 오를 日반이 유명차리다	
	라셔	이러서 ‘누구’ 뒤	누려셔(누구이러서)	

서술격 조사	ㅣ	‘ㅣ’ 모음 이외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이다
	이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 ‘이’ 뒤에 ‘ㄱ’이 오면 ‘ㄱ’은 탈락
- ‘이’ 뒤에 ‘ㄷ’이 오면 ‘ㄷ→ㄹ’
- ‘이’+선어말 ‘오’ → ‘이로’

목적격 조사	을/를	자을 뒤	무수을(마음을) 뵤를(뜻을)	
	를/를	모음 뒤	天下를(천하를) 쌔를(쌔들)	을/를

관형격 조사	ㅅ	무정 명사 높임 명사	나라 말쌔 (나라의 말쌔)	
	이	양성모음 뒤 유정명사 뒤	모리 췌(말의 향기)	의

의
